“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삼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 부활절 찬양예배(잔치)는 저녁 7시에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 연속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원합니다.
- 지역별 사랑방이 조직되면서 모든 사랑방성서모임의 조직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풍성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 율리안 선생님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다음 주일에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드레스덴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재직 중인 Dr.Christian Schwarke 교수님이 장신대학교 학술교류 차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다음 주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설교하십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다 함 께

강단을 꽃으로 : 임은숙 집사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15 호
2023년 4월 9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솟대와 빈 십자가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입구마다 솟대가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 듯 보면 새가 나무에 앉아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솟대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방마다 이 솟대를 소줏대, 솔대, 별신대, 진또배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이 솟대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북아시아 국가들 중에 동일한 풍습을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에는 삼한시대 때부터 전해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솟대는 다양한 의미에서 설치가 되었는데 농촌 마을에서 농사가 풍년이 되기를 바라거나 마을의 액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으며 다산을 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의 목에 볍씨 주머니를 달아 신에게 바치기도 하며 많은 새끼를 낳는 오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끔 물고기 모양을 입에 물려주어 화마를 피하기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오리가 아닌 기러기, 까마귀나 봉황으로 여기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할 때문인지 솟대는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 옆에 같이 세워둬 마을로 들어오려는 잡귀나 화마, 병마를 막아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솟대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지위로, 사람들은 솟대에 다양한 역할을 바랬지만 동물로써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리를 예로 들자면 물속과 위, 땅과 하늘을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고 날아갔다가 돌아오기에 이생과 저세상을 다닐 수 있는 전령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힘이 없는 하위 신으로서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솟대를 윤년이 돌아올 때 마다 다시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과 잡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방황하다가 궁시렁거렸습니다. 그일이 커져 소동이 일어났고 불뱀이 그들중에 나타나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구원을 구했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올렸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놋뱀을 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놋뱀에 능력이 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겼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숭배의 대상이 되다가 없애버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는 죄가 없으신 상태로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에 씻김과 영혼의 구원을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그분의 주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음을 알게 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빈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길을 따를 소망을 품게 해주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따르게 해 줍니다.

우리 눈앞에 빈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안 계시고 십자가만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는 부활하셔서 그곳에 안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내 죄가 씻김을 믿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죄 없이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양이 부활하심을 믿는가? 혹은 저 십자가가 솟대나 놋뱀과 같이 적당히 나의 죄를 가려주며 아등바등 적당히 살다가 하이패스 단말기처럼 천국 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인가? 매 해 켜켜이 쌓인 죄들을 씻고 또 다시 한해 살아갈 힘을 주는 도구인가? 혹은 나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그분의 길을 따르게 만들어주는 참된 생명의 길인가?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며 나의 존재 이유가 되는가? 이 빈 십자가는 부활절 아침에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응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권재만 목사

한주간의 말씀

"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싸여 나타날 것입니다. "

<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149 252 / 322
기도 : 장성아 집사
성경 : 열왕기 하 12장
제목 : 유다왕 요아스

1. 내용: 요아스가 일생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What)
   1~3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가르침대로 행했다.
   4~16 요아스가 성전보수를 명령했다.
   17~21 요아스가 살해 당했다.

2. 의미: 말씀을 잘 배워 지혜롭게 일했다. (Why)
   1) 말씀을 잘 배웠다. (v.2)
   2) 지혜롭게 성전수리를 했다. (v.7)
   3) 이전의 모습으로 변했다. (대하24)

3. 적용: 말씀을 잘 배워 구별하고 살아가자. (How)
   1) 말씀을 잘 배우고 따르자. [믿음의 선배/ 잘 배우며 실천/ 한계의 명확함 인정]
   2) 맡겨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해 내자. [이끄는 자의 통솔력/ 일처리의 명확함/ 맡은자의 성실함]
   3) 잘 분별하자. [말씀이 기준/ 미디어/ 시대의 가치관]

부활로 사는 삶

부활과 소생은 죽은 생명이 살아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생한 사람은 곧 다시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은 부자도, 박사도, 운동선수도, 그 어떤 사람도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소생과 다릅니다. 부활은 의학적으로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일으켜짐, 곧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죽음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로마제국은 예수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물론,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 마저 실패한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옳은 길임을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권세, 부와 명예,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매일 신실하게 사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게 남는 게 뭘까?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당장 예수님처럼 누군가 우릴 잡으러 오지도 않고, 십자가에 매달지는 않지만, 시간이 없다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사망과 어둠으로부터 승리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 주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문득 주어진 시간들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혹은 힘겹게 느껴지더라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부활은 오늘 하루를 버틸 힘, 주어진 걸음을 디딜 힘이 됩니다. 삶 가운데 죽음과 두려움, 분주함으로 숨이 가빠질 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교육역할공동체 장성아

주일공동예배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오전11시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고린도전서 15 : 50-52	인도자
*예배의 찬송	25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에베소서 1 : 7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160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골로새서 3 : 1 - 4	설교자
성가대 찬양	주 사셨다, 예수 부활 했으니	사랑방
설 교	"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491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주님의 사랑이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채영학 박경희/ 봉헌위원 : 채영대/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

땅의 것에 시선을 두는 것. 땅의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땅의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끌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세상은 네가 느끼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네가 경험하는 것이 세상의 실체라고 말합니다. 감각에 의존하게 하면서 우리를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마음 또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세례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은 사람이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싸여 나타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땅에 시선을 두는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함은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선택하셨기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두고, 이 땅에서 고난을 기쁨으로 누립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장지영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꽃전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전 날, 불려둔 찹쌀을 빻으러 다함께 방앗간에 다녀오고, 앞산에서 진달래를 공동체 마당에서 개나리, 제비꽃, 민들레를 따두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꼬마요리사들이 동글납작하게 만든 찹쌀 반죽을 작고 하얀 손바닥에 올리고 그 위에 살포시 꽃을 얹으며 부지런히 꽃전을 만들었습니다. 5세 6세 솜씨와 7세 언니 오빠 형의 솜씨는 좀 차이가 나긴해도 팬에 굽고 설탕을 솔솔 뿌려 완성된 꽃전은 하나같이 곱고 예뻤습니다. 게다가 맛도 일품이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꽃전을 교장선생님, 멋쟁이학교 선생님, 어린이학교 선생님, 설거지하러 오신 부모님, 목공소장님께 가지고 가서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한 후 드리고 가족들 먹을 것도 몇 개 싸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금요일에는 가람이 고모이신, 혜라 작가님의 '빛과 색의 축제' 세라믹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전시회장 근처 소문난 식당에서 탕수육과 자장면을 맛있게 먹은 후 혜라 작가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는 전시회장에 도착해서 아름다운 세라믹 작품들을 마음껏 보았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드는 작품 앞에서 사진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제일 귀한 손님들이라며 꾸러기들을 환대해주신 혜라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월요일에 개교기념일을 보내고 화요일에 아이들이 왔는데 가정에서 꽃구경을 다녀왔는지 얼굴들이 환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봄비가 내려 가뭄으로 메말랐던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었습니다. 비가 와서 온 세상이 더 밝고 선명해 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더 청명해진듯합니다.

금요일엔 예수님을 생각하며 금식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기도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실줄 믿습니다. 식사 후 부활절 준비를 위해 아이들이 직접 용돈을 모아 동그라미 앞을 장식하는 꽃을 사서 예쁘고 정성스럽게 심고 물을 흠뻑 주며 잘 자라라며 예쁜말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꽃이고 꽃이 아이들입니다.

부서 조직을 했습니다. 놀잇감 정리부, 시설 관리부, 체육부, 도서부가 있는데 부서별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월 ~ 화요일 치과 검진, 수요일엔 안과 내과 검진이 있습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멋쟁이학교는 월요일에는 공동체학교 31주년, 멋쟁이학교 21주년 개교기념일으로 각 가정에서 휴식을 가졌고, 저녁에 등교하며 4월 첫 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차분하게 생활하자"라는 생활표어로 시작되었습니다. 멋쟁이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함께 동참하기 위해 지난주 자치회를 통해 오전 금식을 결의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라는 제목으로 계속 준비하고 진행했던 공동심화학습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멋쟁이들은 준비한 자료를 발표할 뿐 아니라, 해당 문화권의 노래를 직접 부르고 무술을 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열린수업 때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충격을 줄 큼 잔인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고뇌와 사랑을 잘 나타내주어서 멋쟁이들과 함께 감상하기에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는 중졸 검정고시와 고졸 검정고시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성장 가능성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주눅들지 말고 차근차근 채워나가고, 좋은 성취가 있는 부분은 교만하지 말고 더욱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교사 : 이돈희 >

부활절 맞이 대청소

바람이 따스해지고, 공동체 마당에 꽃들이 피어나고, 초록색 이파리가 나뭇가지를 물들이는 아름다운 4월입니다. 땅바닥에는 새 생명을 활짝 피우는 갖가지 풀들이 이곳저곳에서 돋아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사랑방에서는 부활절 맞이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 방과 연령별 사랑방 친구들이 각자 맡겨진 장소를 깨끗이 쓸고 닦는 일들이 한창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할까? 걱정했지만, 그것은 기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힘든 기색도 없이, 꾀부리는 사람도 없이 모두 열심을 내어 쓸고 닦고 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창문을 닦아내고, 이곳저곳에 집을 지은 거미줄도 걷어내고, 새로 산 파라솔도 마당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자연예배당 트러스에 쌓인 먼지까지 싹싹 닦아내는 꼼꼼한 집사님들의 솜씨에 모두들 감탄합니다. 자연예배당의 휘장을 교체하고, 천정의 고장난 형광등도 다시 고치면서, 눈에 띄게 정돈된 모양새를 점차 갖추어갑니다.

어린이사랑방 친구들은 공동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더니, 어느새 트램펄린에 올라가 신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교육관 강단 위를 수놓은 하얀 백합들이 부활절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이 이렇게 설레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 오신 부활절을 기념하며 바쁘게 손을 놀리고, 본인 집 청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에 하하 호호 들리는 웃음이 가슴 한 켠을 가득 채워 줍니다.

청소를 마치고 부활절 찬양잔치를 준비하는 찬양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면서, 이곳 사랑방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다시 찾아오고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많은 분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 됨을 다시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마음에 넘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찬 송 : 154, 364
성 경 : 누가복음 21:34-38
말 씀 :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동유럽의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군이 봄 대반격을 예고하고 러시아는 크림반도 접경지역에 참호와 장애물 설치하여 막으려 하고 있다. 핀란드가 31번째로 나토에 가입하여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러시아와 나토 접경지역이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러시아의 군사도발과 우발적인 군사충돌 가능성이 있다.

2. 한국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한국 선교사 제물포 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잘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3. 지역사회와 공동체 위해
   1)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2) 목요 세족 예배, 부활절 맞이 대청소, 부활절 예배 및 찬양 잔치를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전국 각지에서 들려오는 산불 소식과 팍팍하고 갈라진 땅에서 올라오는 흙 먼지로 힘들게 시작한 한 주였습니다. 그러나 곧 온 땅을 충분히 적시고도 남는 큰 비가 오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린 뒤 마당에서 보이는 하늘은 하얀 구름으로 가득하고, 나무들은 연두빛의 새싹을 틔웠습니다. 꽃과 나무들도 부활절을 함께 기뻐하려고 준비하는 듯 새 옷으로 갈아입는 느낌입니다.

부활절 맞이 대청소로 그간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며 우리 영혼에 쌓인 굳은 먼지도 털어 내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 이 얼마나 감격스런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